

---

21세기 통계개발파트너십(PARIS21)  
**연례이사회 참가결과 보고**

---

2013 4

# I 출장 개요

## □ 출장개요

- 기 간 : '13. 4.8.(월) ~ 4.12.(금), 3박 5일
- 장 소 : 프랑스 파리 OECD 본부
- 출장목적
  - '12년 PARIS21 업무성과 및 결산 평가, '13년 업무계획 수립 참여
  - 통계를 위한 부산 액션플랜(BAPS) 이행 상황 점검
  - 국제 사회에 국가 발전을 위한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개도국 지원 사업을 위한 다양한 자원 조달 방법 논의
  - 국가통계개발전략(NSDS) 가이드라인 개정판 작성 진행상황 논의
  - 새천년개발목표(MDGs) 달성 기한인 2015년 이후 논의에서 통계의 중요성 강조를 위한 PARIS21의 역할 논의
- 출 장 자 : 국제협력담당관실 최경순 사무관
  - \* KOICA 이유진 정책기획관 및 주OECD대표부 오주현 KOICA 주재관 참석
- 소요비용 : 약 3,289천원
- 출장일정

월 일 (요일)	시간대	업무수행내용	주요 접촉인사
12.4.8	13:05~18:20	- 이동(인천-파리)	
12.4.9~ 12.4.11	09:00~17:00	- 이사회 참석 - '12년 사업 보고 - '13년 사업예산 및 활동계획 보고 - 부산액션플랜(BAPS) 이행 특별세션 - 국가통계발전전략 가이드라인 - 기타 주제발표	- Johannes Jutting (Paris21 사무국) - Erik Solheim (OECD DAC) - Grant Cameron (세계은행) - Haishan Fu (UNESCAP) - Marine Durand (OECD 통계국)
12.4.11~ 12.4.12	21:00~14:50	- 이동(파리-인천)	

## □ 회의 일정

구분	시간	일정
4.9일(화) 부산액션플랜 특별자문회의	14:00	환영사(Erik Solheim, OECD DAC) 부산액션플랜(BAPS) 이행 계획수립 태스크팀 보고 및 토의
	14:50	커피브레이크
	15:05	부산액션플랜(BAPS) 이행 지원을 위한 자원조달 논의
	15:50	급변하는 환경에서 BAPS 이행 사례발표 및 논의
	17:50	폐회
4.10일(수) 오전 이사회 세션1	09:00	환영사 및 일정 채택
	09:10	2012년 집행위원회 활동, 진행상황 및 NSDS 지침서 개정 현황 보고 및 논의
	10:15	브레이크
	10:30	2013 업무계획 및 예산 보고/ 논의
	12:00	점심
4.10일(수) 오후 이사회 세션2	14:00	부산이후 글로벌 파트너십과 통계의 역할
	15:00	2015년 이후 논의에서 PARIS21의 역할
	16:00	커피브레이크
	16:15	PARIS21 소통 전략
	16:55	2014년 회의 일정 협의
	19:30	환영만찬
4.11일(목) 오전 세미나: 이용자 자료요구 충족	09:00	주제 소개
	09:15	이용자 자료제공 문제점과 장애요인
	10:30	커피브레이크
	11:00	환경변화에 대응한 이용자 자료요구 충족 방안
	12:20	폐회
4.11일(목) 오후 전문가세션: NSDS 설계에서 이행으로	14:00	개회사
	14:10	주제발표(NSDS가 통계발전 및 정책입안에 미친 영향, 효율적 NSDS 이행 장애요인)
	14:30	그룹 토론
	16:00	그룹 토론 결과 발표 및 토로
	17:00	폐회

## II 주요 협의결과

- PARIS21 2013년 업무계획 및 예산 승인
  - PARIS21 사무국은 기존의 CANK(Coordination, Advocacy, NSDS, Knowledge)에서 SAMS(Strategy, Access, Monitoring, Skills)로 업무 모델을 변경하고 각 분야별 업무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였고 이사회에서 이를 원안 승인함
  - '13년 예산은 총 600만 유로로 지난 해(495만 유로)에 비해 21.2% 증가
- 2015년 이후 논의 참여를 위한 실무그룹 설립 의결
  - MDGs 목표 도달 연도인 2015년 이후의 개발 논의에서 통계의 역할 강조를 위한 PARIS21의 참여 범위 등 설정을 위한 working group 설립
- 새로운 제도적 틀과 관련된 혁신 업무 촉구
  - 이용자-생산자 의사소통, 공공-민간 파트너십, 빅데이터, 오픈데이터, 새로운 자료수집 도구 등에 관한 연구 지속 촉구
- 차기 연례이사회 일정 협의
  - 2014년 연례이사회는 4.2~4.4일에 개최하기로 협의



< 연례회의 참가 사진 >

### Ⅲ 관찰 및 평가

- 부산글로벌파트너십 이행 및 Post-2015 협의 과정에서의 통계 및 PARIS21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으며, 특히 Post-2015를 통해 개발협력에서의 통계 중요성인식 및 역할증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기대의식이 있음
- 우리 청은 2011년부터 5년간('11~'15) 매년 40,000유로씩 총 200,000유로의 자발적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어 주요 기여국으로 언급되었으며, PARIS21은 현재 대표부를 통해 외교부(KOICA)를 통한 추가 재원 확보를 시도 중인 것으로 밝힘
- 추후 PARIS21 분담금 납부 및 부산액션플랜 이행 사업 등과 관련하여 한국의 참여 창구 일원화 등 외통부와의 협조 필요
- 발전계획의 시작점이자 평가의 마침표가 된다는 통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, 개발협력에서 통계가 가지는 중요성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, 정책수립, 이행점검, 평가 등 단계별로 구체적인 통계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

### Ⅳ 주요 의제별 논의내용

#### 1. 부산액션플랜(BAPS) 이행 계획수립

##### 가. BAPS 이행 태스크팀 업무보고

- BAPS는 개발아젠다 사이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크게 3대 목표\*와 5개 행동강령\*\*으로 구성됨.

##### \* 목표

1. 정책결정에 있어서 통계의 전면적 활용
2. 통계자료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촉진
3. 통계시스템을 위한 자금조달 활성화

## \*\* 행동강령

1. 통계시스템 개선 중심 통계전략 강화 및 재정립
2. 통계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자료보전, 문서화 및 공표 표준화
3. 기획, 분석, 모니터링, 평가 등에 필요한 지식·기술 향상 프로그램 개발
4. 정상회담 및 고위급포럼 결과 추적을 위한 성과 모니터링 도구 구축·관리
5. 통계정보를 위한 자금조달 활성화

○ 2012년 태스크팀의 주요 업무 성과는 △행동방향별 우선순위 선별 및 전체 맵핑, △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제안서 작성, △모니터링을 위한 프레임워크 제안서 제출 등임.

- 우선순위 선별 및 맵핑 결과, △통계역량개발, △금융 및 사회경제 분야 통계발전, △보건, 교육, 환경, 농업 등 섹터 레벨의 통계 발전에 우선순위가 집중

○ 향후 BAPS는 통계활동의 기준 마련 및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PARIS21은 사무국으로서 동 활동을 총괄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예정

- 통계역량이 부족한 취약국과 도서국가 지원을 위해 통계수집 및 분석에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표준, 가이드라인 및 관련 틀 제공에 노력할 예정

## 나. BAPS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방법

○ 수원국의 입장에서는 부산글로벌파트너십 글로벌 모니터링체계, Post-2015 설계 등과 맞물려 국가차원에서의 정책수립 등에서 통계에 대한 부담과 중요성이 커질 예정

○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통계역량 강화 및 필요한 재원조달도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함

- 현재 BAPS 이행 지원을 위해 STATCAP, SRF/CF, TFSCB 등 다양한 재원조달 채널이 있으나,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

- 향후 통계자료의 접근과 활용 극대화를 위해 글로벌 레벨에서의 기관간 협력과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함.
- 기관간 MOU체결, 섹터 통계활동 합동수행, 국제적 이니셔티브간 대화를 통해, 표준설정, 틀 개발, 설문조사 진행, 재원의 적절한 배분 등의 조정 활동이 필요

#### 다. 국가 사례 발표

##### □ 네팔(Yuba Raj Bhusal 국가계획위원회)

- 통계부문의 법적 체계 구축 및 수요에 기반한 국가통계전략 수립이 1차적으로 진행되었으며, 실질적 역량강화는 통계관리를 위한 ICT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춰 진행됨
- 수원국 입장에서 통계가 정부 내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만큼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노력과 함께 활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우선순위 선별이 중요함

##### □ 팔레스타인(Ola Awad/Shakhshir 중앙통계부)

- 인적역량 강화, 통계의 질 향상, 과학기술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국가적 투자가 이루어졌으며, 국가적 행사와 연결시켜 통계자료를 발간하여 자료의 적시성 및 홍보효과를 꾀함
- 컴퓨터, 스마트폰에 기반한 정보수용에 익숙한 새로운 통계사용 세대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을 활용한 통계혁신성에 R&D 집중

##### □ 카타르(Sheik Hamad Bin Jabor Bin Jassin Al Thani, 통계국)

- 2008년 국가통계전략수립, 2011년 국가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기본적인 전략 틀을 구축하였고, 전략 수립단계부터 민간부문과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인식, 적극적 개입을 유도함
- 전략수립부터 이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통계를 국가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보고, 특히, 이행 단계에서는 통계활동이 NSDS 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일이 필요

## 2. 이사회(Board Meeting)

### 가. 2012년 업무 보고

#### ○ 집행이사회(Executive Committee) 실적 보고

- Paris21 조직관리 관련 OECD와의 협의, 부산액션플랜(BAPS) 이행 태스크팀 자문, 국가통계발전전략(NSDS) 지침서 개정 태스크팀 자문, 예산결산 상황 보고, 금년 연례회의 아젠다 수립, 2015년 이후 Paris21 아젠다 초안 검토 등 지난 1년간 집행이사회의 활동 내역 보고

\* 집행이사회는 Paris21의 정책 방향을 제공하는 의사결정 기구로 사무국 업무 자문을 하고 있으며, 필요시 특정 과제 성과를 위해 태스크팀을 구성할 수 있음.

#### ○ 사무국 실적 보고

- (조정) 2012년 통계지원 파트너 리포트(PRESS) 실시, NSDS 진행 상황 보고, NSDS 지침서 개정, PARIS21 로그 프레임 작성, UNSC · Statcom-Africa · ESCAP 통계위원회 등 행사에 개도국 통계인력 참가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

- (홍보) 15개 국가 및 지역 지원, 18개 국제 및 지역 행사에서 지지 발언, 통계발전지역전략(RSDS) 지원을 위한 책자 및 비디오 제작, Eurostat와 공동으로 지역(중앙아메리카, 동남아시아) 워크숍 개최, 통계지원 국가보고서(CRESS) 작성을 위한 시험조사 결과 통합 및 조사표 간소화 등의 활동을 수행

- (NSDS) 35개 국가/지역 지원, 아비장\* 및 마닐라\*\* 회의 개최 등의 활동을 수행

\* 18개 아프리카 국가 및 기관의 50명 이상 고위급 대표 참석하여 빈곤 감축을 위한 통계의 역할 강화 논의 ('12.9, Abidjan)

\*\* 주요 정부기관, 민간부문, 매체, 시민사회, 학계, 법조계, 국제기구 등이 참석한 최초의 통계역량개발 관련 이용자-생산자 토론의 장 ('12.12, Manila)

- (지식공유) 국제가구조사네트워크(IHSN), 가속자료프로그램(ADP) 추진

○ 국가통계발전전략(NSDS) 지침서 개정 진행상황 보고

- NSDS 가이드라인 개정 태스크팀을 구성하여, 정보수집, 구조결정, 웹사이트 설계 등 착수 단계를 거쳐 현재 90% 개발 완료, UN통계위원회('12,'13) 및 Paris21 연례회의('12,'13)에서 보고함.
- 최종본은 태스크팀차원의 검토 후 전문가 검토 및 번역작업을 마무리하여 공식 발표할 예정

나. 2013년 사무국 업무 및 예산 계획

○ Paris21의 신구조 내에서의 업무계획(2013-15)

- 업무모델을 기존의 CANK(Coordination, Advocacy, NSDS, Knowledge)에서 SAMS(Strategy, Access, Monitoring, Skills)로 변경하여 각 분야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함.
- (전략) NSDS 및 RSDS 지원
- (자료접근성) IHSN, ADP 관련 활동 추진
  - (IHSN) 조사 및 센서스 목록화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, 조사방법 평가 및 지침서 개발, 조사 문서·공표·보관 도구 및 지침 개발 및 개정, 우수사례 촉진 워크숍 개최 등
  - (ADP) 조사 원시자료 접근성 강화, 원시자료 활용 및 강화 요구 강화, 향후 조사품질 개선 등
- (모니터링) BAPS 이행점검, PRESS 추진 및 CRESS 조사표 배포, NSDS 진행상황 보고, 통계개발 글로벌 보고 계획, 정상회의 결과 추적을 위한 온라인 포털 구축 제안 등
- (기술 및 지식공유) NSDS 지침서 개정완료, 홍보활동강화, 기타 과학기술, bid data, MDGs 등과 관련된 연구 진행

○ 자금현황 및 예산(2013-15)

- '13년 예산은 총 600만 유로로 지난 해(495만 유로)에 비해 21.2% 증가

### <사업분야별 3개년 예산(안)>

	2013	2014	2015
S(전략)	1,656,800	1,551,615	1,583,395
A(자료접근성)	2,620,615	2,694,135	2,786,340
M(모니터링)	627,980	740,940	684,740
S(기술 및 지식 공유)	1,099,940	914,130	934,685
합계	6,007,348	5,902,834	5,991,175

- 한국(통계청)은 2015년까지 약 20만유로 기여를 약정하여 주요 기여국으로 언급

### 3. 주요 개발메커니즘 맥락에서의 통계

#### 가. Busan Global Partnership과 통계의 역할

- o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은 결과 중심, 포용성, 투명성, 책임성에 관한 원칙에 기반하고 있는데, 통계는 투명성과 책임성 원칙의 핵심 지원요소임
- o 글로벌모니터링 체계는 개별 수원국 이행지표 및 글로벌 지표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으며, 초안상태인 글로벌 지표 중 수원국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지표는 아래 10개 지표 중 1, 5, 6, 7, 9(a)에 해당
- 동 데이터 수집은 OECD/UNDP 주도하, 별도의 시스템 구축없이 수원국이 관리하는 기존 데이터(existing sources)를 활용할 예정임.

#### ※ 부산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지표

-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수원국의 우선순위 반영 | 6. 원조의 예산화                     |
| 2. 시민사회의 참여와 기여 | 7. 상호책임성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민간분야의 역량 강화  | 8. 양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               |
| 4. 개발협력 정보 공개   | 9. (a) 수원국 공공재정시스템(PMF)의 질적 수준 |
| 5. (a) 단기 예측가능성 | (b) 수원국 PMF 및 조달시스템 활용         |
| (b) 중기 예측가능성    | 10. 비구속화                       |

## 나. Post-2015에의 PARIS21 역할

- 과거 MDGs가 설계되던 시점에서는 빈곤, 교육, 성평등 등 각 분야의 비참함의 정도가 구체적인 목표(target)와 지표(indicator)설정의 근거가 되었다면, post-2015를 준비하는 현시점에서는 각 영역이 가지는 기회 요소가 목표와 지표의 근거가 되고 있음.
  - 개발과 성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달라진 접근법과 논의의 발전 추이가 향후 PARIS21작업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임.
- 데이터의 사용가능성, 진단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계역량, 책임성 메커니즘의 구성 가능성 등에 기반을 둔 Post-2015 지표 설정에 PARIS21의 역할이 중요
- 이와 함께, 수원국이 글로벌레벨의 지표 협의과정에서 수원국의 목소리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원국의 통계역량강화 노력도 함께 따라야 할 것임
- PARIS21은 Post-2015 활동 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, UN 통계위원회 Friends of the Chair Group에 참여, 통계생산자와 사용자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을 계획 중
  - Post-2015가 가지는 중요성에 따라, 향후 BAPS이행 실무 작업반 종료 후, Post-2015 실무 작업반 구성 예정
- Post-2015를 국제사회에 개발의 맥락에서 통계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시키고, 통계 기반 정책형성 및 통계시스템/역량강화의 모멘텀을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함

## 다. PARIS 21 소통전략

- PARIS21의 활동 홍보, 아웃리치 강화, 조정 및 대화 증진을 목적으로, 웹사이트, 뉴스레터, 소셜미디어, 홍보 자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소통을 진행 중임
- 통계가 원조방식선택, 수원국시스템활용, 성과관리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 소통 수단

- 소통의 대상은 공여국과 수원국, 국제사회, 통계생산자와 사용자별로 차별화하여 전략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되, 현 시점에서는 통계사용자에 초점을 맞춰 진행

#### 4. 변화된 통계환경과 이용자 요구 충족

- 식량안보, 경제위기, 환경문제, 정치적 불안정 등은 예전보다 더 빠른 데이터(real-time data) 제공을 요구, Post-2015는 삶의 질, 사회적 화합 등 새로운 통계영역을 만들어 냄
- 활용 가능한 자원과 역량은 제한적인데 환경변화에 따라 수요와 기대가 증대된다는 점이 가장 큰 도전과제이며, 과학기술 활용 등이 그 해결방안으로 고려되어야 함
- 현재까지 통계분야에서 민관협력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, 민간부문이 가지는 마케팅기술, IT기술 등 잠재력을 충분히 주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

#### 5. NSDS 설계에서 이행으로 진행

- NSDS를 수립함으로써 개도국은 국가통계시스템을 강화하고 국가의 개발정책과 프로그램을 설계, 이행, 점검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됨
- 지금까지 많은 국가들이 NSDS 설계를 개발목표로 정하고 추진한 결과, 2006년 88개국에서 2012년 112개국으로 급격히 증가
- 여전히 NSDS 이행을 위한 지속적 통계개발 활동 자원 확보, 정부 지원, 정부 우선순위 변경, 국내/국가간/개발파트너간 효율적 조정 등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재정 지원 기반이 취약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
- NSDS의 성공적 이행 방안, 지속적 자원확보 방안, 정책입안에서의 통계 주류화 등에 관한 전문가 논의를 거쳐 2013년 PARIS21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2014년 연례이사회에서 결과 발표 예정